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모란과 작약의 계절이 지나면 곧 수국꽃 피는 계절이다. 수국꽃은 여름을 여는 신호와 같다. 벌써 이마가 데일 듯 낮 땀은 뜨겁고, 머잖아 향기로운 여름 과일들이 쏟아져나올 테다. 기억 속 여름의 한 풍경. 때죽나무 위에서 매미가 맹렬하게 울어댄다. 화단에는 키 작은 맨드라미가 있고, 경충 지란 해바라기도 우두커니 서 있다. 어른들이 집을 비워 나 혼자 중일 심심했다. 뽕나무로 올라가 오디를 따먹었다. 까맣게 잘 익어 달콤새콤했다. 오디를 욱실히 움켜쥐었던 손은 금세 보랏빛으로 물들고, 셔츠 자락도 보랏빛 범벅이 되었다. 옷을 더럽혔다고 어머니가 꾸중을 하실 게 분명했다. 밤 늦게 지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내 옷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어린 시절의 동네에는 철공소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 보면 용접봉에서 쇠썩 소리를 내며 튀어나온 파란 불꽃이 뿜어내며 갈라진 허허를 훑었다. 나무 위에는 제물처럼 달궈진 쇠가 울려져 있는데, 망치가 모두 위의 쇠를 두드리면 나는 쇠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퍼졌다. 세상의 강철들을 연마하는 모루와 망치들. 한여름의 철

딸애들처럼 웃자라서 내 품을 떠나는 여름의 날들

공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엔 모루와 망치의 합창, 후끈한 열기와 땀방울들이 있었다. 나는 심부름을 나왔다가 용접봉에서 나오는 파란 불꽃에 매혹되어 철공소 앞을 떠나지 못했다. 여름의 철공소와 함께 나는 미처 가보지 못한 먼 고장을 꿈꾸곤 했다. 거기 번잡한 도시들, 낯선 기쁨과 향신료 냄새들이 후각을 찌르는 시장, 귀에 선 말로 소통하는 사람들과 맞부딪지 못한 열대과일도 풍성할 테다.

여름은 나무들의 전성기다. 수목들은 무성하고, 식물 특유의 방향이 공중에 가득 떠돈다. 녹색 잎은 여름을 바르듯 반짝거리며. 바람이 불면 쟁쟁한 향기들을 내는 녹색 잎들, 활엽의 나무들이 일제히 내뿜는 산소, 나무들이 드리우는 그늘들. 여름의 모든 것이 좋다. 여름의 나무 그늘에서 여름을 노래하는 시를 읽는 것도 좋다. '올여름의 할 일은/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김경인 '여름의 할 일') 같은 싱그러운 시구를 찾아 읽는 기쁨을 누린다. '태양이 내리쬐는 넓은 해변들//하얀 더위/푸른 강물//다시, 말라붙은 노란 야자나무들//여름에 잠자는 집에서/8월 내내 꾸벅 졸며//내가 붙잡았던 날들/내가 잃어버린 날들//팔애들처럼 웃자라서/내 팔을 빠져나가는 날들' (데릭 월컷 '한여름, 토바고'). 오, 팔애들처럼 웃자라서 팔을 빠져나가는 여름의 날이라니! 여름이 없었다면 이토록 많은 여름의 시들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테다.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어느 해 여름을 보낸 적이 있다. 그곳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향이고 작가의 무덤이 있다. 올리브와 무화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그 섬을 찾아갔다. 끼니때가 되면 해변가 식당을 찾아가 오징어 튀김과 해산물, 갓 구운 신선한 빵, 짭짤한 올리브 열매,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양파와 양상추, 체다치즈를 곁들인 요리를 먹었다. 바다에서 쾌적한 바람이 불어왔다. 배부르게 먹고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다가 숙소로 돌아오면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아니었을까?

여름은 파란 바다와 흰 모래가 빛나는 계절, 긴 셔츠와 반바지의 계절이다. 여름은 여름이라서 모든 게 좋은 일, 비 오는 날엔 소풍의 피아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서른 몇 해 전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고성(古城)에서 가곡을 부르며 향수로 눈시울이 적시던 찰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겪은 열일곱 살 여자애와의 첫 키스가 찾아온다. 다시 여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마구 땀다. 세월이 더 흐르면 나는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죽는 이유를, 여름이 항상 좋았던 까닭을. 하지만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인 채로 살아간다. 아는 것은 여름의 빛들이 내 인생을 스쳐간 영화(榮華)의 기억을 불러온다는 사실뿐이다. 여름의 빛은 짧게 머물다가 사라진다.

지나간 것은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다. 변성기 무렵 내 목소리는 겨우 소리 같았다. 읊지는 내 인생의 불운. 부모들이 돌아가신 뒤 나는 더 이상 가곡을 부르지 않는다. 오, 인생의 모든 여름들이여, 그 짧은 여름의 빛이여!

종교칼럼

영원한 청춘, 김동수 열사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모든 열사들은 영원한 청춘(青春)이다. 푸르른 봄이라... 그 이름만으로도 싱그럽고 아름답다. 그들은 활짝 피어오른 절정의 순간에 멈추어 있다. 활짝 핀 꽃처럼 싱그러운 젊음을 가득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그 젊음이 담고 있는 삶이 고통으로 잠잠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열사의 얼굴은 환하기만 하다. 오히려 살아남은 이들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해지는 것은 열사가 미처 누리지 못한 삶까지 대신 살기 때문이다.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머리는 하얗게 탈색되고 얼굴은 주글주글해지고 급기야 검버섯까지 핀다. 그렇게 세월은 열사들을 비껴간다.

1980년 당시 조선대 전자공학과 3학년이 재학 중이던 김동수 열사는 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직을 맡아 불교학생회를 이끌었고,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부위원장도 맡았다. 5월, 계엄군이 광주를 점령하자 전남도청 항쟁지도부에서 학생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5월 27일 새벽 4시 30분께 계엄군 총탄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전을 사수하다 숨졌다.

열사의 고향 마을은 풍요로운 들녘과 듬직한 야산을

품고 있다. 열사는 고향마을에서 자연의 넉넉한 포용력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였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로 나아갔으리라. 하지만 어머니같은 자비심도 계엄군의 총탄에 피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무자비한 것이 인간의 역사이자 중생심이다.

광주에서 제법 떨어진 장성 사골에서 치룬 행사임에도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았다. 일전에 진모영 감독은 나를 만나, 열사의 생가에 오래된 창고가 비어서 열사의 기념관으로 활용 한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래서 올해는 열사의 마을에서 조촐하게 열사를 추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최측의 예상과 다르게 엄청난 인파가 찾아왔다.

나고 자란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일까? 추모문화제에서 만난 김동수 열사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무성한 이파리로 넉넉한 그늘을 드리운 마을 어귀 정자 나무 아래에 조촐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열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찻김국이 이어진다. 열사를 태운 반야용선이 넘실넘실 하얀 바다를 건너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옆에 앉아 계신 열사의 어머니가 혼자 낮드리하듯 조용히 말한다. "잘가거라."

영원한 청춘을 사는 것은 열사만이 아니다. 김준테 시인은 광주를 일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라고 하였다. 그날의 광주 역시 열사들처럼 흐르는 세월을 비껴 홀로 우뚝 서 있다.

광주는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안고서 영원한 청춘이라는 천형을 받고 있다. 당장 나부터도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조금

은 더 즐겁고 조금은 더 축제처럼 광주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날 것의 고통을 굳이 매번 마주해야 할까 의문스러웠다.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과거는 털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날의 역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속성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이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다. 역사 속 광주는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고 있는 영원한 청춘의 도시이다. 역사 속에서 영원한 청춘을 살고 있는 열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열정으로 불태우고 있다.

대학 1학년 때였을 것이다. 방학이 되어 집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서 전태일 평전을 읽었다. 그때, 처음으로 전태일 열사를 알게 되었다. 충격이었다. 나도 그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 지금도 썬팅된 차창으로 내리쬐던 직사광선도 나른했던 햇살의 기억이 생생하다.

평소 친분 있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젊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길래, "열사의 삶을 지표로 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젊은 청년 전태일의 해맑은 얼굴과 미소는 지금도 여전하다. 다만 게으름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 오늘의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젊은 학생들 역시 김동수 열사를 마음 속 깊이 새겨, 평생 지니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언젠가 그 어떤 날 삶이 힘들 때, 해맑은 얼굴로 불꽃 열사가 그대들을 반길 것이다.

"내가 낡지 따라 변할 사람 같소?" 이 한 마디에 김동수 열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社說

글로벌 교육박람회에서 미래 교육모델 찾다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그제 막을 올려 다음달 2일까지 5일 일정인데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처럼 지역 중심의 교육개혁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라는데 의미가 있다.

개막식 후 열린 기조 강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의 주장은 전남처럼 교육 환경이 열악한 로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만하다.

박람회에는 캐나다·영국·싱가포르 등 22개 국가가 참여해 공생을 향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몽골·미국·베트남 등 7개 국가에서 온 학생 400여명이 문화 교류로

우정을 쌓는 행사도 마련됐다. 국제교육관에서는 세계 교육 현장을 직관할 수 있고 구글·애플·네이버 등이 참여한 플랫폼 기업 관에선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실제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이라는 말처럼 이번 박람회는 전남 교육을 중심으로 'K-에듀'를 세계에 선보이는 현장이기도 하다. 전남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미래 교육모델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교육만큼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도 없다. 글로벌 교육박람회를 통해 전남에 가장 적합한 미래 교육모델을 찾는 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박람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래 교육을 체험했으면 한다. 교육 관계자들 또한 각종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최적의 교육 모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마약검출 증가 특단대책 세워야

광주·전남 지역 마약 하수 검출량이 전국 상위권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압페타린과 엑스터시 등 흥분과 환각 작용을 하는 마약류 검출량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가 주축이 된 하수역학 연구팀의 용역연구를 토대로 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한 뒤 하수유량, 하수채집지역 내 인구수를 고려해 인구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마약 하수 검출량이 일부 마약류에서 전국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기간 시도별 1일 사용 추정량을 보면 광주지역 압페타린 검출량은 4년 평균 29.43mg으로, 충북 청주시(41.28mg)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우울증과 파킨슨병, 비

만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압페타린은 인체 활동성을 증가시켜 피곤함을 잊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남용시 호흡 곤란과 혈압 증가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물질이다.

전남은 압페타린 계열 유기 화합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엑스터시 마약 사용량이 높게 나타났다. 동남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엑스터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마약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당국의 마약 감시와 관리는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전남의 여건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치료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포유류처럼 정치하라. 한국 정치계가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도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정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마음은 여과 없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호남에서 불행사나운 공천 갈등을 보이면서 지역 유권자의 불신을 키웠다. 경선 과정에 불거진 고소·고발 탓에 당 선된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는 사법기관의 문턱

부터 넘어야 할 상황이다. 과거 경선이 마무리되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던 '원팀' 정신도 사라졌다. 물고 뜯고 싸우다가 화해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파다다.

포유류라는 단어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다. 먹이를 물어 새끼에게 주는 조류와는 다르게 포유류는 자신의 몸 속의 것, 젖을 먹인다. 억지를 부려본다면, 영어의 발음인 '포유' (for you) 또한 배려와 희생이다. 이에 인류는 '젖을 먹이는 가장

인류애적인 행위'를 다양한 예술로 표현했다.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는 흉수를 피해 헛간에 머무르다 만난 굶주린 낫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젖을 먹이는 인산부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에도 굶어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은 노인에게 경비병의 눈을 피해 젖을 먹이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를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생 없이는 '민'도 얻지 못한다"며 정치인에게 늘 민중보다 반

결심만 앞서가라 했다. 22대 국회에서 전투력만 키우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잠시 정쟁과 투쟁의 속도를 줄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정치인이라야 김대중 대통령처럼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젖을 먹이며 새 생명을 키운 포유류답게 '내 것을 먼저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맞은 편과 대화도 협의도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기고

운주사 보탑과 법화경



김병태 광주 대인치과의원 원장

화순 운주사는 수수께끼의 현상이다.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토론회와 현장답사가 진행될 모양이다. 그동안 진행던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신비의 현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나는 운주사 물형의 배치는 일부 아마추어들 간에 제기된 묘법연화경(법화경)의 견보탑품(見寶塔品)의 경전 내용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가 사부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하니, 큰 우뢰소리와 함께 보배탑(석조 불감)이 솟아 나온다. 사부대중은 놀라움과 함께 공중에 떠 있는 보배탑의 문을 열어보라고 했다. 세존께서는 보배탑 안에 있는 곳에 전에 열반하셔서 선정에 드신 다보여래가 계시는 곳이다. 다보불은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경정 하겠다고 서원을 하신 불이다. 세존의 법화경 설법 하심을 듣고자 지하에서 공중에 솟아 올랐다. 다보여래의 상을 보려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신 모든 분신제불과 수행 중인 보살들이 다 모여야 한다고 세존께서

말씀했다. 그 말에 따라 솟아오른 보배탑 안의 다보여래를 보려고 모여드는 상황을 운주사는 표현한 것과 일치한다.

세존의 육계에서 광명이 시방세계에 비추자 보배탑(석조 불감)으로 모여들었다. 땅에서 솟아 나온 보살(방형탑), 바다에서 솟아 나온 보살(원형탑), 시자보살을 대동하신 분신제불들, 거인국에서 오신 묘음보살. 모두가 모이는 모습과 세존께 한아름 꽃다발과 공양물을 드리는 모습, 법화경을 경청하는 모습, 보배탑을 열어서 보고 경배하는 상황이 형성화된 야외법회 현장이다.

분신제불들이 다 모이자 공중에 떠 있는 보배탑을 볼 수 있도록 세존이 백호에서 광명을 쏟아내 대중들을 공중에 뜨게 하셨다. 그리고 세존께서 보배탑 문을 열자 선정에 드신 다보여래께서 안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세존이시여 법화경을 참으로 잘 설하십니다"고 칭찬 하셨다. 다보여래께서 자기 자리의 반을 내어주시면서, 석가모니에게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하자 들어가서 좌정하신다. 법화경은 이 모습을 '분반좌, 불병좌' (分半坐,佛並坐)라고 적시하고 있다. 운주사의 석조 불감과 일치한다.

보물 제797호 석조불감(보배탑)은 운주사의 중심공간이며 공중 법회의 광장이다. 불교 이념이 약해졌고 주위가 경직되어 바뀌면서 초창기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된다. 31일 학술세미나와 6월21일 외국

학자들의 현지 답사와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수수께끼로 남겨진 운주사의 신비를 푸는 실타래의 꼬투리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석조불감에서 남쪽을 향하고 계신 불은 석가모니불이고, 북쪽을 향하고 계신 불은 다보여래불이다. 운주사의 석상들은 사부대중(四部大眾)을 표현했다. 불상이 아니므로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석상들은 차별을 매우 잘 표현한 것이다. 보살은 종지용출 보살과 종해용출 보살로 구별할 수 있다. 종지용출 보살은 보배탑을 보기 위해서 삼천대천세계의 시방에서 천만 억 보살마하살이 동시에 땅을 찢고 솟아나온 보살들이다. 보살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네 영도자를 상행, 무변행, 정행, 안립행이라 이름하였다. 석가모니를 우리 러보면서 문안과 설법을 듣는 모습이다. 종해용출보살은 문수보살이 바다속 사가라용공에 가시어 교화시킨 보살들로 보배탑을 보기 위해서 연꽃 위에 출현하신 보살들, 즉 원형탑(원화탑과 연등탑)들이다. 묘법연화경의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과 제바달다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운주사는 8권의 법화경 28품 중에서 제11품 견보탑품, 제12품 제바달다품, 제15품 종지용출품, 제7품 화성유품, 제4품 신태품(장자궁자)등 법화경의 경전 내용으로 조성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미공개되었던 운주사 신비를 푸는데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가 늘어 나기를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